

최근 북한의 정책대응 동향과 전망

이종규 |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 jklee@kdi.re.kr

1. 머리말

2021년은 북한에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모두 의미가 있는 한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북한은 단기 대응에 정책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이종규, 2021). 먼저 단기적인 측면에서 국경을 2년째 봉쇄하고 무역이 중단된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북한 당국의 유연한 정책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였다. 이에 농업, 건설, 방역 등 긴급한 부문에 우선적으로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기적 측면에서 2021년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첫 해였다. 하지만 대북제재와 보건 위기라는 조건하에서 중앙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지방에서는 ‘자력갱생’을 전면에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에 중앙에서는 금속 및 화학 등 핵심 부문에 대한 독려, 지방에서는 지역 간 경쟁 고취를 강조했다. 끝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에 대한 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기간으로 설정했다. 그동안 시장화 확산에 대한 관리를 고민했던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시기를 충분히 활용하여 향후의 방향성을 정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어떻게 정책적 대응을 하였으며, 2022년 북한의 정책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질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¹⁾ 앞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기간을 단기, 중기, 장기적인 관점으로 나누어서 평가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향후 방향성에 대한 전망을 해보도록 한다.

1) 2022년 북한의 재정 계획이 아직 대외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고는 정성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적 대응만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가예산이 발표되는 시점에 맞추어 북한의 2022년 재정 계획을 따로 상세히 분석할 예정이다.

II. 단기 정책기조: 농업·건설·경공업·방역 강조

국경이 봉쇄된 상황 속에서 북한 당국은 필수불가결한 부문과 단기적인 성과가 바로 나올 수 있는 부문부터 신경 쓸 수밖에 없었다. 이는 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 주민들의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 주민들의 생필품을 생산하는 경공업, 노력 동원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한 건설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2021년의 각종 현지지도나 회의에서는 방역, 인민소비품 생산, 농사 결속 등이 유독 강조되었다. 예를 들면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지금 세계사적인 대류형전염병 사태가 억제되지 않고 확산되는 위험한 형세는 국가적인 방역대책을 강화해 실시할 것을 요구하므로 모든 당 조직들과 일군들이 국가방역체계와 이 부문의 사업을 재점검하며 방역전선을 다시 한 번 긴장시키고 각성시키기 위한 일대 정치공세, 집중공세가 요구된다(방역). 또한 경공업 공장들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보장대책을 선행하고, 인민소비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이고 생산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제고하며 품질감독 사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경공업). 올해 농사결속을 잘하여 계획한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하고, 모든 것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불리한 이상기후현상을 이겨내며 알곡증산을 위한 줄기찬 투쟁이 필요하다(농업).”라고 했다(『조선신보』, 2021. 9. 8). 다른 부문에서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장 조치가 가능한 부문부터 실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21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²⁾에서는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상기한 부문들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특히 “국가경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당이 중시하는 농업부문과 건설부문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된 것을 비롯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국방부문 등 국가사업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긍정적 변화들이 일어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며, 앞으로의 발전에 필요한 귀중한 경험을 축적한 것이다. 2022년은 계획을 력동적으로, 전진적으로, 과학적으로, 세부적으로 잘 수립하여 5개년 계획수행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라면서 농업과 건설의 성과를 부각시키기도 했다(『조선신보』, 2021. 12. 3). 더 구체적으로 보면,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속에서 과학농사를 중시하고 앞선 농법을 받아들였으며, 모내기과 풀베기, 가을걷이 등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간석지 개간에 집중함으로써 평안북도의 ‘홍건도간석지’와 황해북도의 ‘뽕매도간석지’가

2) 2021년 1월, 2월, 6월에 이어 4번째로 소집된 전원회의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사회하에서 6개 의제가 논의되었다. ① 2021년 집행정형 총화 및 2022년 사업계획, ② 2021년 국가예산집행정형 및 2022년 국가예산안, ③ 사회주의 농촌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당면 과업, ④ 당 규약 수정, ⑤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의 2021년 하반기 당 조직 사상생활 정형, ⑥ 조직문제.

완공될 수 있었다. 특히 이들은 간석지 개간 역사상 최대로 알려졌는데, 전국적으로 2,000정보의 새로운 땅을 개간하는 성과를 냈다.”고 했으며, 건설과 관련해서는 ““삼지연시의 산간문화도시를 본보기 지방 도시로 발전시켰고, 평양시 살림집(1만세대)과 보통강강안 다락식주택구(800세대), 함경남도 검덕지구살림집(5년 동안 25,000세대) 등 대규모 건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했다(『조선신보』, 2021. 12. 27).

이렇게 농업과 건설에서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부각시키기는 했으나, 실제 결과는 매우 미흡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임수호(2021, p.1)는 “평양 1만 세대 건설이 기본적으로 결속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아직 마감재 공사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삼지연 3단계 공사가 마무리되었다고 하나 원래 제작년에 마감됐어야 할 과제임을 고려하면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기타 검덕지구 등 함경도 홍수피해 살림집 건설의 경우에도 ‘성과적 진척’, ‘원만히 진행’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때 아직 미완의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2021년 북한은 필수불가결한 부문과 즉각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문인 농업과 건설에 집중했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러다 보니 연말 전원회의에서도 이들을 부각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목표했던 것을 만족스럽게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2022년에도 이들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021년 동안 지속적으로 방역과 경공업 부문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연말 전원회의에서는 이 분야의 성과를 크게 부각시키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표 1〉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 농업 및 건설 부문

	주요 목표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자혁명, 과학농사, - 저수확지에서의 증산, 신규농지 개발과 간석지 개발 - 영농의 수리화 및 기계화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 연 1만호씩 5년간 5만호 주택 건설 - 검덕지구 연 5천호씩 5년간 2만 5천호 주택 건설 - 시멘트 연간 800만톤 생산 - 자체 원료를 사용하는 염료와 외장재 생산기지 구축 - 지붕재 생산기술 발전, 탄소제로 건물의 건설에 필요한 건설자재 생산 준비 - 각 도에 지방의 원료에 기초한 견재 생산기지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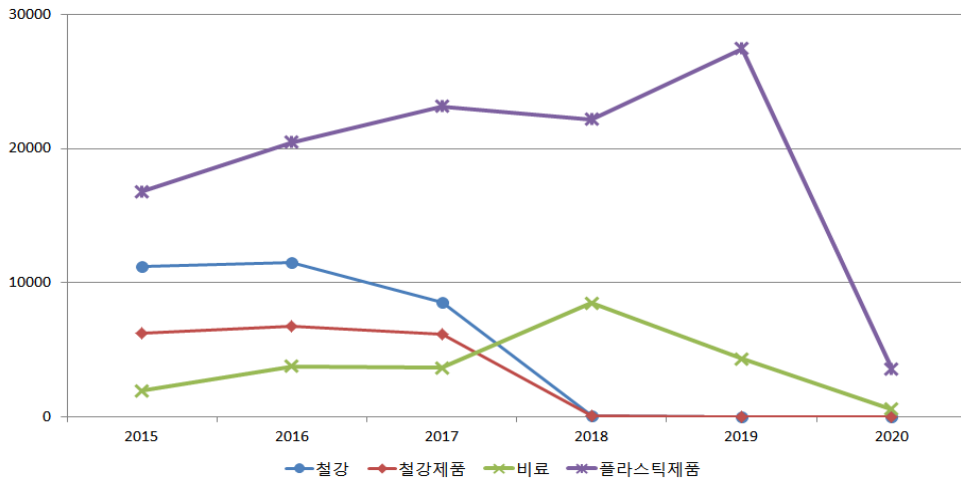
자료: 이석기, 「북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평가와 시사점」, 『KIET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2021; 박용석, 「북한의 주택건설과 평양 5만호 건설계획에 관한 소고」, 『KDB 북한개발』, 2021년 겨울호(통권 25호), KDB 산업은행, 2021.

Ⅲ. 중기 정책기조: 금속·화학 및 지역경쟁 강조

중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2021년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5년)이 시작되는 해로서 의미를 가졌다. 5개년 계획에서는 한계에 직면한 대내외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최소한의 방향성만 설정하고 금속 및 화학 분야³⁾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이석기, 2021). 이는 직전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년)이 새로운 발전전략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과 다르게 수세적인 모습을 보였다 할 수 있다(홍재환 외, 2021). 특히 금속 및 화학 공업의 경우 제재 이전에는 수입을 통해 소재부품에 대한 공급이 가능해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았는데, 무역이 봉쇄된 상황 속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 선명하게 불거지고 산업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필요성이 훨씬 더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금속 제품들의 경우 제재 대상이 되면서 2018년부터 수입이 거의 끊기는 흐름을 보였고, 화학 제품들은 제재 이후 수입이 오히려 늘어나다가 국경봉쇄와 함께 2020년부터 수입이 급감하는 추세를 보였다. 어느 경우이든 5개년 계획이 발표되던 시점에는 이들 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과거보다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기조는 2021년 내내 이어졌다.

[그림 1] 북한의 대중수입: 금속 및 화학 부문

(단위: 만달러)



자료: KITA를 바탕으로 작성(www.kita.net, 검색일: 2022. 1. 20).

3)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북한은 금속 및 화학 부문에서의 원료 및 자원 국산화에 신경을 써왔으며, 이러한 중요성은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더욱 부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부문은 '자립경제의 쌍기둥'으로까지 불리고 있다('연합뉴스', 2021. 9. 17).

작년에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 북한의 각종 공식매체들은 금속 및 화학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언급한 바 있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현 시기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원료와 자재, 동력과 설비들을 충분히 생산 보장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인민경제 중요 부문들에 원료를 보장하는 기본생산 부문인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의 발전을 전반적 경제발전에 앞세우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라며 강조했다(『조선신보』, 2021. 10. 6), 실제 북한 매체들은 황해제철연합기업소,⁴⁾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보산제철소, 부령합금철공장,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등에서 계획을 충실히 완수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조선신보』, 2021. 8. 11).

하지만 과장된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들 분야에서 명시적으로 ‘계획 달성’이라는 표현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당초의 목표에 미달했을 가능성이 높으며(임수호, 2022, pp.1~2), 이는 2022년 계획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1~25년까지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은 향후 15년 동안 북한경제 발전 계획의 기초를 쌓는 기간이고, 그중에서도 2021년은 이러한 5개년 계획의 첫 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 당국의 부담은 더욱 커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에서 이렇게 ‘선택과 집중’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면, 지방에서는 지역경쟁을 통한 자력경쟁을 내세웠다. 중앙에서도 일부 부문에만 역량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기 지방의 원료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동원 리용하여 지방자체의 힘으로 소비품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간장, 된장으로부터 가구와 시멘트에 이르기까지 인민생활 및 지방건설에 필요한 갖가지 제품이 생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조선신보』, 2021. 10. 8). 또한 지방 공업공장들 사이의 경쟁이 활발해지고 앞선 경험을 서로 교환하면서 발전 속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공장 간 경쟁뿐 아니라 지역 간 경쟁(도, 군, 도시 단위)도 강조되었는데, 실제로 평안북도와 강원도에서 공장과 시설들이 계획대로 건설되고 다각적 발전의 기틀을 마련되는 등 좋은 성과를 냈다고 추켜세우기도 했다(『조선신보』, 2021. 12. 25).

종합적으로 보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진행되는 남은 4년 동안에도 중앙에서는 선택적으로 금속과 화학 공업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여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방의 경우에는 각 지역이 알아서 생존할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경쟁이 고취될 것으로 예상된다.⁵⁾

4) 산소열법용광로, 초고전력전기로 등의 가동률을 높여 선철, 강철, 압연강재의 생산계획을 수행한다.

5) “조선에서는 사회주의경쟁이 비약과 발전을 추동하는 방법으로 되어왔다. 근로자들, 집단들사이, 그리고 협동농장이나 과수농장, 각 공장, 기업소들

IV. 장기 정책기조: 사회주의 기강 강조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중요한 한 축이 ‘선택과 집중’이었다면 또 다른 한 축은 ‘사회주의 기강 확립’이었으며, 이러한 기조는 2021년에 계속 부각되는 모습을 보였다. 단적인 예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가면서 비판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내각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농업과 같은 부문은 현실 가능성도 없이 과장된 계획이 세워져 있는 반면, 전력, 건설, 경공업 등에서는 정비 및 보강을 한다는 핑계로 계획을 일부러 낮추는 폐단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어 반드시 수입해야 할 물자가 아닌 경우에도 수입을 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영기업소들을 불법적인 돈벌이에 내몰게 된다는 비판도 있었다. 무엇보다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는 당권과 법권은 물론 군권까지 발동해서 제거해야 한다는 경고까지 내려지게 되었다(『통일뉴스』, 2021. 2. 12).

이렇게 강한 비판과 지적은 2021년 내내 지속되었는데, 6월에 있었던 당 중앙위원회의 전원회의에서는 “당과 정부가 어느 때보다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했고(『조선신보』, 2021. 6. 11), 김정은 위원장도 직접 연설을 통해 “국가 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성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전 전선에서 비혁명적이고 비전투적인 락후한 모든 것을 불살라버리며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을 이룩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조선신보』, 2021. 10. 8). 이를 위해 사상 사업을 강화하고 시대에 맞는 방법을 찾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인민들의 사상 감정과 지향, 발전하는 시대적 추세에 부합되면서도 자기 지역, 자기 단위의 구체적 실정과 특성에 맞는 새롭고 참신한 사상사업 형식과 방법들을 적극 탐구하고 적용하는 한편 선전선동의 역량과 수단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등 과거와 다른 방식을 주문하는 모습도 보였다(『조선신보』, 2021. 10.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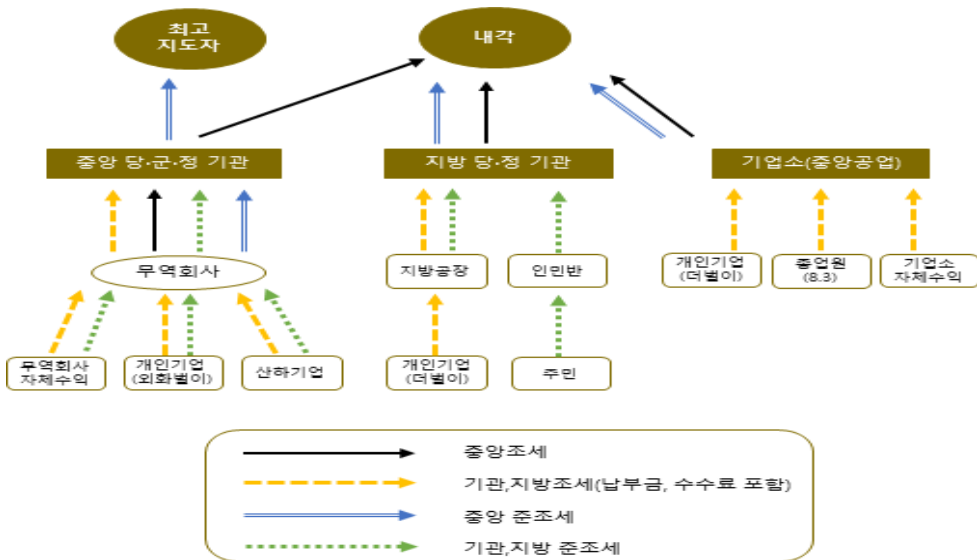
사회주의 기강 확립 분위기는 북한의 장기 경제발전 계획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2021년을 시작으로 15년 동안의 장기적인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당 제8차 당대회가 설정한 5개년 계획 기간을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우고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사이에서 활기를 띠며 벌어져 중전에 없었던 성과가 기록되었다. 이번 경쟁은 이렇게 한정된 부문, 단위들 사이가 아니라 가장 큰 지방행정구역단위인 도들 사이, 당정책의 말단지도단위, 집행단위이고 농촌경리와 지방경제를 지도하는 지역적 거점인 군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 특정한 지역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이 다같이 균형적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시/군 단위를 보면 원산시(강원도), 성천군(평안남도), 운산군(평안북도), 장진군(함경남도), 과일군(황해남도) 등이 앞선 단위로 인정되고 있다. 특히 성천군과 운산군은 지난 시기 큰물 피해를 자주 입던 곳이었는 데 치산치수를 잘하여 최근의 기록적인 큰 물에도 끄덕 없었다. 산림복구, 살림집 및 학교건설 등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조선신보』, 2021. 11. 5).

효과적인 5년(2021~25년), 세월을 앞당겨 강산을 또 한 번 크게 변모시키는 대변혁의 5년으로 되게 하고(2026~30년), 다음 단계의 거창한 작전을 연속적으로 전개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우는 것(2031~35년)”으로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 기강 확립이 강조되면서 일각에서는 그동안의 성장동력이었던 비공식부문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즉, 현재와 같은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면 주민과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비공식부문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은 장마당으로부터 나오는 장세 등으로부터 비롯되는데, 공식부문을 강화하여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들이 오히려 비공식부문을 위축시킴으로써 재정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북한당국도 주민들 사이에서 확산되던 시장화 현상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 정도를 삼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즉, 코로나19로 인해 국경이 봉쇄된 시기를 제도적인 준비를 갖추 수 있는 기회로 전환하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를 통해 조금 더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고, 그 이후에는 ‘질서 있는 시장화’를 지향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도 ‘개인의 책임 있는 경제활동’ 또는 ‘사회주의책임관리제’를 강조하는 점을 보면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림 2] 북한 준조세의 납부 수취 체계



자료: 양문수·임송, 「북한의 경제체제에 관한 연구: 실태와 평가」, 『BOK 경제연구』, 제2021-13호, 한국은행, p.50.

V. 평가 및 전망

앞서 우리는 보건위기 상황 속에서 북한의 정책적 대응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2021년이 가지는 의미를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 구분해서 알아봤다. 결론적으로 2021년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 및 코로나19와 같이 불리한 환경이 펼쳐지면서 주민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부문(농업)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문(건설)에만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확인했다. 또한 재정 등 중앙의 역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속 및 화학 부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했으며, 지방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역 간 경쟁을 통해 자력생산을 유도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무역이 급감하고 국경이 봉쇄된 상황을 사회주의 기강 확립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확인하기도 했다.

이러한 입장은 2022년으로도 고스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단기 관점에서 보면 보건 위기가 3년째 지속됨으로써 부정적 영향이 증폭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여전히 중요한 이슈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또한 5개년 계획의 첫 해에 목표했던 것들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제는 2022년으로 이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제한된 환경과 현재의 정책적 역량을 고려한다면 중앙 차원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지방 차원에서는 ‘지역 간 경쟁’의 기초를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끝으로 북한은 지난 5개년 전략(2016~20년)의 중요한 실패 원인의 하나로 비계획적 경제 운영을 꼽고 있는 만큼 사회주의 기강 확립과 내각의 역할을 계속해서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⁶⁾

무엇보다도 북한의 정책 대응에 있어 2022년에 주목해야 할 변수는 북중무역의 재개 여부일 것이다. 이는 올해 북한경제 전체를 파악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무역이 이미 바닥이었던 상태에서 2021년에도 북중무역이 급감했는데, 이는 시장공급선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북중무역은 북한이 스스로 봉쇄함으로써 심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인지한다면 이를 유연하게 조절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가장 필요한 일부

6) “항경북도 어랑천 발전소 현장을 찾은 김정은 위원장은 노력과 자체가 보장되지 않아 건설이 중단되다시피 되었는데, 왜 이 지경이 되도록 내각이 대책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고 질책하고, 필요한 설비, 자재보장과 수송을 맡은 모든 단위들에서 중산, 중층 투쟁을 힘 있게 조직 전개하라고 지시했다. 착공 후 17년이 지나도록 70% 밖에 공사가 진척되지 않았던 어랑천 팔랑 언제(댐)는 김정은의 지시가 떨어지자 불과 15개월만인 2019년 10월에 완공되었다. 이 사례는 5개년 전략의 투자계획 자체가 너무 무리했고, 그래서 우선순위가 아닌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김석진, 2021, p.5~6).

물품들을 중심으로 교역을 재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북중무역이 바로 재개된다면 기저효과로 인해 무역이 급증함으로써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는 것처럼 착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고 상황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되었을 때 그동안 비정상적인 흐름을 보였던 물가와 환율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반드시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아울러 비공식부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모니터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시장화의 확산에 대한 관리 및 통제 조치들이 향후 얼마나 고강도로 광범위하게 적용되는지는 북한의 경제성장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비공식부문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해 왔으며, 경제의 많은 부분을 공식부문 대신 담당해 왔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상품 배분 효율성 향상(유통, 교통, 통신 등 서비스 부문의 발전), 노동시장 형성, 노동 생산성 제고 등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북한 당국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질서 있는 시장화'를 추구하되 각종 조치들을 무리하게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와 같이 불확실성이 큰 상황 속에서 북한의 경제정책 대응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북한의 정책기조 변화에 관해 주목해 봐야 할 변수들이 존재하는 만큼(북중무역 재개 여부, 시장화 억제 조치에 대한 지속 여부), 이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석진, 「북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왜 실패했을까?」, 『온라인시리즈』, CO 21-06, 통일연구원, 2021.
- 『노컷뉴스』, 「새로운 방식의 北 전원회의... 결론 먼저 내리고 당에서 예산도 논의」, 2021년 12월 30일.
- 박용석, 「북한의 주택건설과 평양 5만호 건설계획에 관한 소고」, 『KDB 북한개발』, 2021년 겨울호(통권 25호), KDB 산업은행, 2021.
- 양문수·임송, 「북한의 경제체제에 관한 연구: 실태와 평가」, 『BOK 경제연구』, 제2021-13호, 한국은행, 2021.
- 『연합뉴스』, 「북한, 원자재 국산화 안간힘... 금속화학재료 과학기술 발표회」, 2021년 9월 17일.
- 이석기, 「북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평가와 시사점」, 『KIET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2021.
- 이종규, 「대북제재와 북한의 대외무역」; 이석 편 『대북제재의 영향력과 북한의 경제적 미래』, KDI 연구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21(근간 예정).
- 임수호,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4차 전원회의 경제부문 결과 분석」, 『이슈브리프(318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2.
- 『조선신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5월 계획 완수」, 2021. 6. 9.
- _____,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6월 상순에 소집」, 2021. 6. 11.
- _____, 「여러 단위들이 7월 인민경제계획 완수」, 2021. 8. 11.
- _____, 「김정은 원수님께서 보통강주택구건설장을 현지지도」, 2021. 9. 1.
- _____,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회의 김정은 원수님께서 사회」, 2021. 9. 8.
- _____, 「김정은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 2021. 10. 6.
- _____, 「지방공업공장 현대화를 적극 추진」, 2021. 10. 8.
- _____,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기에 맞게 당 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자」, 2021. 10. 15.
- _____, 「전국의 균형적 동시발전을 위한 도, 군사이 경쟁 전개」, 2021. 11. 5.
- _____,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 완공단계」, 2021. 11. 10.

- _____, 「새 변이비루스에 최대의 경계」, 2021. 12. 3.
- _____, 「12월 하순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소집」, 2021. 12. 6.
- _____, 「로동당을 멸사복무의 심부름군당으로」, 2021. 12. 13.
- _____, 「5개년 계획의 첫 해, 평안북도가 눈부신 성과」, 2021. 12. 15.
- _____, 「자력갱생을 영원한 변영의 보검으로」, 2021. 12. 22.
- _____, 「5개년 계획의 첫 해, 승리의 해로 장식」, 2021. 12. 27.
- 『통일뉴스』, 「김정은, ‘북남·대외부문 전술적 방향 제시’ 짧게 언급」, 2022년 1월 1일.
- _____, 「북, 전원회의 종료... ‘인민들이 개변된 실상을 느끼도록 해야」, 2021년 2월 12일.
-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북한의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분석」, 『온라인시리즈』, CO 22-01, 통일연구원, 2022.
- 홍제환·최지영·정은이·정은미·조정아,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 분석(2): 경제 및 사회 분야」, 『온라인시리즈』, CO 21-02, 통일연구원, 2021.

<웹사이트>

- 중국해관통계(<http://english.customs.gov.cn>, 접속일: 2022. 1. 20).
-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접속일: 2022. 1. 20).
- Daily NK(<https://www.dailynk.com/>, 접속일: 2022. 1. 20).